

[대련일일뉴스(6월10일)]

大連 5월 자동차 판매대수, 39.3% 증가

대련시 통계국에 의하면 5월 자동차 판매 대수는 7,900대로 전년 동월대비 39.3% 증가. 판매액은 총11억 1천만元으로, 40.2% 증가.

제품별로 보면, 승용차가 39% 증가한 4,629대, 오프 로드차가 330% 늘어난 628대. 판매액은 각각 22.7% 증가한 6억 7천만元, 196.4% 성장한 2,600만元.

1~5월 누적 판매 대수는 35.4% 증가한 3만 8천대, 판매액은 31.3% 늘어난 52억 9천만元 기록

마츠시타 電工, 대련 자회사 해산

마츠시타 전공은 회전칼날 웨이버 제조판매 자회사인 파나소닉 電工大連有限公司를 해산한다고 발표. 제품 생산은 파나소닉 電工萬寶電器廣州有限公司으로 집중, 세계적으로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체질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

파나소닉 電工大連有限公司는 2002년 설립. 마츠시타 電工이 55%, 大連遼無二電器有限公司가 35%, 파나소닉 電工中國이 10% 출자.

沈陽 古宮, 대대적인 개보수 착수

- 공사비 4억元, 7월말 종료 -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沈陽 古宮이 등록 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에 착수. 沈陽市城鄉建設委員會에 의하면, 古宮內 90%가 대상이며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음.

북경 올림픽 개막에 맞추어 7월말 완공이 목표이며, 총 공사비는 4억元임. 지붕이나 창틀, 돌 벽돌의 보수나, 외벽 도장 등, 주로 외관을 개보수하므로 옥내의 관람에는 영향이 없음.

發改委, 유제품 업계 지원 조치 발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유제품 업계용 첫 통일 지침인 「乳製品加工業産業政策」 발표. 이번 정책의 목적은 국내 기업의 매수, 합병 등을 지원하여 上場이나 사채 발행시 호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의 육성 및 촉진으로 분석됨.

중국내 유제품 메이커(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는 **2007**년말 기준 **2**천개사에 달하고 연간 생산량은 약 **3**천만 톤, 생산 능력은 **5**천만 톤으로 일부 지역에서의 생산 능력의 잉여는 **4~50%**에 이룸. 이로 인해 가격이나 점유율 경쟁 등에 의해 손실이 확대되는 기업도 적지 않음.

중국~독일간 화물 철도 노선, 연내 개통

독일 철도·도이체 반(DB)이 북경과 독일 **Hamburg**를 묶는 화물 철도 노선의 연내 개통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양국간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동 노선은 북경에서 몽고와 러시아, 벨라루스, 폴란드 등 **4**개국을 경유, 독일에 도착하며 총 거리는 **1**만km에 달함. 운영은 DB가 주식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실시할 예정이고, 향후 **3**개월 이내 운행 개시 가능.

茂名 석유화학 플랜트, 화재로 생산 정지

中國石油化工集團(中石化) 산하·茂名석유화학은 에틸렌 플랜트로 낙뢰에 의해 장치 일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 불은 **3**시간만에 진화되었지만 현재는 생산을 중지한 상태임.

피해를 입은 설비는 **2006**년 생산을 개시한 **64**만 톤급 플랜트로 손상된 설비 교체 등에 **10~15**일 정도가 소요될 예정임. **1996**년 완성한 **36**만 톤급 플랜트 및 석유 플랜트는 큰 피해가 없어 이미 생산이 재개되었음.

상하이, 유류 공급 부족 심각

최근 상하이시에 가솔린, 디젤유의 공급 부족이 계속 되어 시정부가 대책 마련에 돌입. 석유 대기업 **2**개사에 석유 제품의 공급량을 큰폭으로 늘리도록하는 한편 시내 가솔린 공급 주유소 분포 상황을 공표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노력중임.

국제 원유가의 대폭 상승, 사천성 대지진에 의한 공급 라인 불안정, 기온 상승에 의한 수요 증가등을 배경으로, 가솔린 부족은 전 중국에서 표면화되는 문제임. 시내 가솔린 주유소에는 연일, 많은 자동차가 밀려 드는 상태가 지속 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공급량 2천톤/日 증가

상하이시정부는 中國石油化工(中石化)과 中國石油天然가스集團(中石油)의 석유 대기업 2개사에 공급량을 1일 2천톤씩 늘리도록 요구. 이에따라 中石化는 6월 1일부터, 가솔린 800톤과 디젤유 800톤, 中石油는 가솔린 200톤과 디젤유 200톤을 추가 공급중임

홍콩인의 심천내 인민폐 예금 급증 - 심천 400억元, 홍콩내 766억元 -

심천의 은행에 있는 홍콩 시민의 인민폐 예금이, 지난달 하순 기준 약 400억元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금년 들어 59%나 증가한 것임. 홍콩내 인민폐 계좌와 합하면 홍콩 시민이 보유한 인민폐는 이미 1천억元을 상회함.

중국 경제지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금년 4월 20일 기준, 홍콩 시민이 심천에 보유한 인민폐 계좌는 117만 3,900개, 예금 잔고는 397억 7천만 元. 이는 금년초 대비 각각 34만 8,100개, 147억 7,300만 元 증가한 것임.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는 홍콩의 저금리와 인민폐 강세의 영향으로 분석됨.

홍콩 시민에 의한 예금은 정기에 집중되는데, 정기예금 잔고는 212억元에 달하며, 특히 금년 들어 그 추세가 현저하여 연초대비 증가액중 79%에 해당되는 117억元이 정기예금으로 입금되었음. 정기예금 중에서도 3개월 이내의 단기가 인기이며 홍콩 시민 계좌의 88%는 외자 은행에 집중된 것도 특이점임.

심천시 상업은행 관계자에 의하면, 홍콩 시민에 의한 인민폐 예금의 신장율은 동시 전체의 인민폐 예금 신장율보다 52% 포인트나 높은 것임.

홍콩 금융 관리국(HKMA)은 5월 30일, 홍콩내 금융기관에 예치된 인민폐 예금 잔고가 766억元에 이르렀다고 발표. 지난해 말의 334억元 대비 4개월만에 약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심천내 인민폐 계좌와 합하면, 홍콩 시민이 보유한 인민폐 예금은 이미 **1,163**억엔에 달함.

廈門航空 중-대만 직항 운행 준비
- 타이베이~하문간 1시간 1편-

廈門航空이 중국 본토~대만간 직항편 운행 준비에 돌입. 동사는 보잉 **737-800** 여객기 **10**대를 구입, 향후 타이베이~하문을 **1**시간에 **1**편, 高雄~하문을 **2**시간에 **1**편을 투입한다는 구상임.

廈門航空은 금년이 설립 **24**주년이며, 중국 **3**대 항공사인 남방 항공이 **60%**을 출자하였음.

중국 본토~대만간 전세기 운행
- 북경, 상하이, 광저우, 샤먼 등 4개 도시 취항-

중국 본토~대만간 전세기 직행 항공편이 북경, 상하이, 광저우, 하문 등 **4**개 도시에 취항하며, 그 중 상하이~대만간은 주 **4**편 운항될 예정.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7**월 초순 취항할 예정으로 중국과 대만의 양측의 항공 회사가 운영할 것으로 판단됨. 상하이 여행사는 정식 통지 하달후 예약을 개시할 계획이지만, 핑조우 여행사에서는 항공사에 좌석 예약 신청과 동시에 관광객 예약접수도 개시하였음<끝>